

독도의 생물

3. 도화새우

동해의 수심 150~300m에서 발견되며, 다양한 저질에 서식한다. 체색은 황적색 바탕에
붉은색 가로줄무늬가 있으며 갑각의 옆면에는 큰 흰점무늬가 여러 개 있다.

독도의 생물

4. 보석말미잘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 동부 및 독도 연안에 분포하며 수심 5m 전후의 암반 조하대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견되는 소형 말미잘류로서 촉수를 펼쳤을 때의 몸체 직경이 1cm 전후이다.



독도의 생물

5. 비단부채게

갑각길이 약 15mm, 갑각너비 약 20mm이다. 갑각은 좁은 부채꼴이다. 이마는 앞쪽 아래로 약간 튀어나오고 2부분으로 나뉜다. 눈구멍은 공모양에 가깝다.



독도의 생물

6. 점해마

머리는 몸과 직각을 이루는 말의 형태이다. 몸은 길고 좌우로 납작하며, 둥근 마디가 이어지는 체륜으로 덮여 있다. 주둥이는 관 모양으로 길다. 머리에 낮은 관상돌기가 있다



독도의 해양자원

1. 수상자원

독도 주변 바다는 다양한 어패류와 해조류가 서식하여 우리나라의 주 어장이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황소보다 큰 바다사자들이 뼈지어 살았으나 일제강점기 일본 어부들의 남획과 광복 후 미공군의 폭격 연습 때문에 자취를 감추었다. 1940년대 초반까지는 물개가 집단으로 서식하였으나 미군기의 폭격과 일본 어부들의 남획으로 사활린 쪽으로 떠나 버렸다. 최근에 이르러 가끔 몇 마리씩 나타나기도 한다. 어패류로는 앞에서 언급한 오징어를 비롯하여 명태, 대구, 문어, 새우, 전복, 소라, 해삼, 분홍성게, 보라성게 등 다양한 어패류가 서식한다. 해조류로는 남조류 5종, 홍조류 67종, 갈조류 19종, 녹조류 7종 등 모두 102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다시마, 미역, 김 등이 해중림을 이룬다.

독도의 해양자원

2. 매장자원

KAIST 생명공학과의 조사에 따르면, 독도 근해 해저에 이른바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 고체천연가스 또는 메탄수화물)가 확인된 양만 약 6억 톤가량 매장되어 있다고 밝혀졌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녹으면서 물과 메탄 가스를 발생시켜 효용가치가 큰 미래 청정자원으로 주요 선진국의 개발·연구 대상으로 주목받는 자원이다.

독도의 해양자원

2-1. 하이드레이트

메테인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 methane clathrate)는 많은 양의 메테인이 결정 구조의 물 안에 갇혀 있고 얼음과 비슷한 고체를 형성하는 고체 클라스레이트 화합물이다.

독도의 영유권분쟁

1. 일본

독도를 소유하면 주변의 바다, 즉 바다의 천연자원까지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독도 주변 해역은 차가운 한류와 따뜻한 난류가 만나는, 다양한 어류들이 사는 엄청난 어장이에요. 또, 독도 주변에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또한 일본의 정치인들은 국내적으로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이 생기면 일본인들의 관심을 나라 밖으로 돌리려고 독도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기도 한대요.

독도의 영유권분쟁

2.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 등을 비롯하여 일본의 <통항일람>, <한국수산지> 등에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되었습니다.

독도의 영유권분쟁

3. 독도수호국제연맹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 침탈 전략에 맞서기 위해 독도수호사관 생도를 양성하고 전세계의 지도 및 웹사이트, 각종 출판물에 표기된 ‘다케시마 (Takeshim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삭제하고자 결성된 비영리 시민단체이다.